

## 라틴아메리카의 국경과 이민: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 접경 지역의 문화와 일상\*

임상래(부산외대 스페인어과)\*\*

- I. 들어가는 말
- II. 삼중국경의 생태와 인문지리
- III. 삼중국경 지역의 이주와 이동
- IV. 삼중국경의 역설적 동력
- V. 이과수 국경공동체: 공유와 통합의 국경
- VI. 맺는 말

### I. 들어가는 말

인접한 국가간의 지리적-물리적-자연적인 관계를 일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국경이다. 국경이란 말 그대로 ‘국가간의 경계’를 의미한다. 영어로는 boundary, frontier, border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바운더리’는 지리적 용어로서 國界 또는 市界 등 경계선을 정의하며 ‘보더’는 직접적으로 인접한 다른 국가와의 경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 ‘보더’를 이루는 한 나라의 일부분을 ‘프론티어’라고 한다(김홍철 1997, 23-25). 그러나 이러한 개념 정의들은 맥락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프론티어는 어떤 경우에는

\* 이 논문은 2002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 2002-072-BM2085).

\*\* Sang-Rae Lim(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epartment of Spanish, srlim@pufs.ac.kr), “Life & Culture in Triple Frontier”.

미개발지란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다. 미국에서 서부 개척 시대에 프론티어는 원주민들을 몰아(밀어)내고 새로 얻게 된 ‘개척지’를 의미했고 따라서 위험하고 야만스런 일종의 변경(邊境)이었다.

국경을 의미하는 스페인어는 일반적으로 ‘프론테라’(frontera)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라틴아메리카의 국경은 주로 산맥, 하천, 호수, 사막 등과 같은 자연적 분계선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식민본국과의 관계에서 기인하는 역사적-정치적 고려에 의한 인위적 국경선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경계선으로서의 국경의 가장 일반적 유형은 양국간 국경이나 여러 나라가 일정지역을 공동의 국경으로 접하는 다중국경도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세 나라가 국경을 공유하는 곳은 13 개 곳이 있는데 이 중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삼국이 만나는 이과수 지역은 삼국국경 지역 중 경제적 규모가 가장 크고, 지정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 성격을 갖는 지역이다.

국경은 국가간의 경계이고 격리이다. 그래서 국경은 대립이나 충돌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국경은 만남의 공간이기도 하다. 두 국민이 만나고 두 문화가 만나는 곳이며 그래서 국가간 관계는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하게 된다. 이처럼 국경은 단절과 연속, 협력과 대립의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곳이다. 삼국이 만나는 삼중국경은 이러한 끊김과 이어짐 그리고 협력과 대립의 관계가 양국간의 국경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중적으로 전개되는 것이라고 전제할 수 있다. 따라서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의 삼중국경은 국경의 변화와 속성을 탐색하기에 더 없이 적절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과수 삼중국경 지역의 일상을 고찰하여 라틴아메리카 국경이 갖는 현단계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이 지역의 지리-지형적 요소들을 살펴보고 도시간 이동/소통/이주/교류의 양태와 경로와 분석할 것이다. 또 세 도시간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적이고 생존적인 움직임들의 작용과 과정들을 통해 세 도시간의 상호관계, 즉 공동체적 성격의 정도를 규명함으로써 라틴아메

리카 남미남부지역에서 국경이 갖는 의미를 조망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주제의 유관연구로는 이과수의 지리-관광과 파라과이 국경의 테러리즘에 관한 일부 연구가 있을 뿐 삼중국경의 공동체적-순환적 성격을 고찰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거의 없는 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소수의 선행 연구물과 삼국의 일간지, 저널, 공적문서 등을 1차 자료로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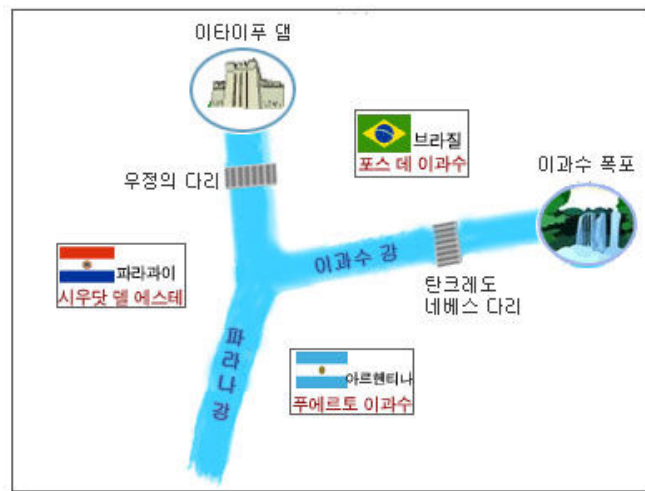
## II. 삼중국경의 생태와 인문지리

### II.1. 이과수와 파라나

이과수 삼국국경은 아르헨티나의 푸에르토 이과수(Puerto Iguazu, 이하 PI), 브라질의 포스 데 이과수(Foz de Iguazu, 이하 FI), 파라과이의 시우단 델 에스테(Ciudad del Este, 이하 CE)의 세 도시가 삼각을 이루는 곳이다. FI와 PI간에는 이과수 강이 흐르며 그 상류에 유명한 이과수 폭포가 있다. 과라니어로 ‘큰 물’이라는 이름답게 이 지역은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는 곳이며 다습한 아열대기후대에 속하며 연강수량은 1,700mm를 넘는다. 평균 기온은 겨울은 섭씨 15도, 여름은 25도이지만 한 여름에는 40도에 이른다.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밀, 콩, 커피 등이 많이 생산되는 농업 지역이며 최근에는 이과수 폭포를 중심으로 관광업과 상업이 발달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국경 지역은 미시오네스(Misiones)주인데 아열대 우림 지역으로 깊은 협곡과 하천, 낮은 산들이 있다. 동서양의 여러 인종 집단이 어우러져 살고 있으며 마테 차, 목재, 카사바(마니옥) 등의 재배가 성하다. 이과수 삼국국경의 브라질 쪽은 파라나(Parana)주 이다. 주도는 생태도시로 잘 알려진 꾸리찌바이며 17세기 금이 발견되면서 본격적인 식민화가 시작된 곳이다. 주민들은 주로 포르투갈계이나 19세기 이후 유럽과 중동 등에서 이민도 많았다. 주요한 커피 생산

지이며 제재업과 목축업이 발전하고 있다. 파라과이 국경 도시인 CE는 알토 파라나(Alto Parana)주의 수도이다. 이 지역은 비옥한 화산성 토양으로 고지-습윤 지역이며 파라과이에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다. 이 지역은 파라나 강이 흘러 수자원이 풍부하며, 이타이푸 댐으로도 유명하다.(이전 1994, 218-219, 239; Britannica:미시오네스/파라나; 미시오네스 주정부).



양국 국경을 형성하고 있는 이과수 폭포는 크고 작은 257개의 폭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폭포와 그 주변 정글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유네스코의 인류자연유산으로 등록된 곳이다. 주변 정글에는 아열대에서 열대에 이르는 다양한 식물이 무성하고, 많은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폭포는 양국에 걸쳐 장 장 3km이며 높이가 약 60m인 ‘악마의 목구멍(Garganta del Diablo)’을 중심으로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이과수 폭포 지역은 한때 파라과이의 영토였으나 1864-70년 파라과이 전쟁(또는 삼국동맹전쟁)에서 파라과이가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 동맹군에 패하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영토가 되었다.(민만식 외 1993, 262)

이과수 폭포는 삼중국경의 지리적 소통과 경제적 순환을 완성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우선 폭포는 삼중국경내의 이동을 수월하게 하고 교류를 긴밀하게 만든다. 이 지역의 주 수입원이 되고 있는 폭포관광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어느 곳에서건 가능하며 폭포관광을 위해 양국을 왕래할 때는 정식 비자가 없어도 된다. 브라질 쪽 관광은 도보로 약 3km이며 이과수 폭포의 전체적 전경을 보기에 좋다. 아르헨티나 쪽에서는 코스가 훨씬 길며, 폭포의 아래와 위로 다양한 관광코스가 있다. 헬기, 보트, 지프 등으로도 관광할 수 있다. 대부분의 관광 프로그램도 양국의 관광 코스를 함께 합쳐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PI와 FI는 폭포 관광을 공유하고 있는 일종의 ‘쌍둥이 도시’이다. FI는 이과수 관광을 위한 도시이기에 폭포 관광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FI는 세계적인 미항인 리우, 실질적인 수도인 상파울루 그리고 이전 수도였던 살바도르에 이어 브라질에서 4번째로 중요한 관광도시이다.<sup>1)</sup> PI 역시 마찬가지이다. 인구 3만의 소도시인 PI는 도시전체가 폭포관광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아르헨티나 폐소화가 안정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 부에노스아이레스, 과타고니아 등 과 함께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CE 역시 이과수 관광객들이 주 고객임을 고려할 때, 크게 보아 폭포경제권이라고 할 수 있다.

파라과이를 양분하며 흘러온 파라나 강은 브라질과의 국경을 따라 흐르다가 아르헨티나-브라질 사이를 흘러온 이과수강과 만나 합류한다. 이곳이 바로 삼중국경을 형성되는 지역이다. 파라나 강은 다시 우루과이 강과 합류하면서 라플라타 강이 되어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를 거쳐 대서양으로 흘러든다. 우정의 다리에서 파라나 강 상류 14km 지점에 파라과이와 브라질 양국에 걸쳐 있는 이타이푸 댐이 있다. 폭포와 함께 이 지역의 경제와 자연을 대표하는 이타이푸 댐

1) 2002년 통계에 의하면 브라질 5대 관광도시는 Rio de Janeiro(38,58%), Sao Paulo(20,84%), Salvador(12,76%), Foz de Iguazu(9,28%), Recife(8,24%)이다.(Folha de São Paulo, 2003/8/12)

은 삼국국경의 성장과 확대를 촉진시켰다. 70년대 시작된 댐 공사로 주변지역에 새로운 주거지가 건설되었고, 값싼 전력이 공급되어 공장들이 들어서게 되었고, 이를 위한 서비스업들이 발전하였다. 이타이푸 댐은 높이 240m, 폭 8km이며 호수의 길이는 200km에 이른다. 세계 최대의 단일 수력발전소로 시설 용량은 1,260만 kw이며 파라과이와 브라질이 각 9개씩 총 18개의 전력 터빈을 가지고 있으나 파라과이는 1개 터빈만 사용하고, 8개는 브라질에 임차해주고 로열티를 받고 있다. 댐이 생겨 30년 전 6만이었던 삼국국경지역의 인구는 현재 유동인구를 포함하여 약 70만으로 급증했다. 75년 댐이 완공되면서 대도시로 모습을 갖춘 CE는 아순시온에서 33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나 파라과이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로 성장하였다. 1965년 파라과이와 브라질을 잇는 국경교량인 ‘우정의 다리’(Puente de la Amistad)가 완공되고 이어 1984년 5월 이타이푸 발전소가 가동되면서부터 이 지역은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CE의 상업은 주로 FI 와의 거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주변 국경지역까지 포함하여 거래되는 액수는 정상적인 거래와 밀무역을 합쳐 연간 최소 40억 최대 1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sup>2)</sup> 즉, CE는 국경의 쇼핑센터라고 할 수 있다.

살펴본 것처럼 이 지역의 경제활동의 중심은 관광업과 도소매업 중심의 상업이다. 이는 이과수 폭포와 이타이푸 댐과 같은 자연 환경적 요소들이 삼중국경 지역의 경제-사회적 관계의 형성에 밀접하게 개입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II.2. 인구와 인종

삼국국경의 현재 인구는 FI 27만, CE 17만, PI 3만으로 총 약 50여만 정도이다. 이 수치는 국가별 전체인구와 대비할 때 많은 숫자는 아니다. 삼중국경 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역사는 그리 긴 편이 아니다. 왜냐면 식민 초기 이 지역은 큰 물과 울창한 밀림만이 무성

2) 참고로 파라과이의 국민총생산은 68억 달러(2001년), 54억 달러(2002년)를 기록하였다.

한 변방중의 변방이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사람이 살기 위한 곳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게다가 식민 초기 남미지역에 이민 온 자들은 주로 해안 지역에 정착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노동력이 필요로 하는 곳은 도시에 인접한 대농장 주변이었기 때문이었다. 초기 아르헨티나 이민자의 40%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집중되었고 우루과이에서도 대부분의 이민자는 몬테비데오에 모여 있었다.(The Cambridge Encyclopedia, 145) 이것은 브라질도 마찬가지였다. 삼중국경 지역에 일반인들이 관심이 높아진 것은 독립이후부터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인종적으로 매우 다양한 구성을 가진 곳이다. 그러나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아랍계 이민자가 라틴아메리카에서 상과울루 다음으로 가장 많은 곳이란 사실이다. 중동계 이민자들의 다수는 브라질과 파라과이로 입국하여 이곳으로 이주한 자들이다.

1980년대 파라과이 스트로에스네르(Stroessner) 정부가 중동이민 정책을 펴자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CE로 왔다. 이들은 주로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찾아 이민을 온 자들로 생활력이 강하고 근면하였다. 현재 이들의 다수는 FI에서 살면서 CE에서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이 FI에서 사는 것은 우선 CE보다 생활 여건이 양호하고 브라질 사회가 이민자에 대해 더 개방적이기 때문이다.<sup>3)</sup> 현재 브라질에는 총 1,300만 명의 아랍계인구가 있다. 합법적으로 브라질에 입국한 아랍계 이민자들은 외국인 등록을 하고 체류증을 받게 되는데 이로서 브라질에서 생활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삼국국경지역의 아랍계중 상당수는 브라질에서 이곳 내륙으로 들어온 자들이다. 아랍계 이민자 숫자는 FI와 CE에 약 15,000-30,000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 중 다수는 레바논과 시리아 출신이다. 이들 중 60%가 온건한 수니파(전통주의자)이고 35%가 시아파(근

3) 브라질 사회는 인종과 종교에 대해 관용적이다. 중동계 이민자와 그들의 종교인 이슬람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공중파와 케이블 방송 등 대중매체에서 개신교와 카톨릭 방송은 물론이거니와 회교 채널도 많이 시청된다. 이슬람 예배 소개와 교리를 강해하는 이 방송은 아랍계 이민자의 정착과 이에 대한 사회적 태도 그리고 브라질 사회의 인종적-종교적 다양성의 단면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분주의자)라고 한다.(El Terrorismo Global y la Triple Frontera)

이들은 주로 상업에 종사하는데 성실하고 장사수단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CE 시내 한 복판에 ‘선지자 무하마드’ 사원이 있고 FI에는 ‘후세인’ 사원과 ‘이슬람센터’ 사원이 있고 각 도시에 한 명씩의 이맘(imam, 회교사원의 예배지도자)이 있어 신앙을 지도하고 있다. 특히 FI에서는 도시 곳곳에서 아랍적인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가장 중심가인 ‘아베니다 브라질’ 도로변에는 아랍식당은 물론이고 아랍식품을 파는 가게도 있으며 주변에서는 차도르를 쓴 여성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반면 FI에는 아랍계 이민자는 거의 없다.

삼중국경에는 중동계 이민 외에도 중국, 일본, 한국의 이민자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주로 상업에 종사하는데, 한국인 이민자들은 주로 CE에 많다. CE의 경우, 총인구는 유동 인구를 포함하면 약 20 만 명 정도인데 이중 25,000여명 정도가 아시아계인 것으로 추산된다. 출신국 별로 보면, 중국인 13,000명, 아랍계 10,000명, 우리나라 교민 800명, 일본인 500명 순이다. 이외에도 삼중국경지역에는 크로아티아인과 독일-러시아-캐나다 출신의 메노파 교도들이 인근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농업에 종사하며 파라과이 내륙의 마카(maka) 원주민들도 이곳으로 이주해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삼중국경은 유럽과 동양계 이민자 뿐만이 아니라 토착 원주민까지 포함하는 인종적으로 매우 다양한 구성을 보이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 III. 삼중국경 지역의 이주와 이동

#### III.1. 이주와 이민

인디오의 아메리카에서 라틴적인 아메리카로의 전환은 이민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틴아메리카의 역사는 원주민의 몰살/착취, 유럽 이민자의 유입 그리고 아프리카 흑인 노동력의



수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라틴아메리카 각국이 독립하고 해외 이민, 특히 유럽으로부터의 이민이 중남미 전역으로 확대되어 유입되었다. 전통적으로 들어오는 이민의 대륙이었던 라틴아메리카에서 나가는 이민이 많아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950년대 이후부터 라틴아메리카는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미국이나 유럽 등 산업화된 국가로의 이출민이 많아지는 지역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지역 내 국가간의 이주도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아르헨티나는 라틴아메리카 최대의 수민국이다. 1800년대 중반 아르헨티나에서 “통치하는 것은 사람을 살게 하는 것”(gobernar es poblar)이었다. 이들 이민자들은 초기에는 목양과 밀농작에, 1900년대 이후에는 공장, 부두, 건설현장의 노동자가 되었다. 이민으로 인해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아르헨티나 인구는 1869년 170만 명, 1895년 390만 명, 1914년 780만으로 증가하였다. 다수는 이태리와 스페인계였고 아르헨티나의 발전과 도시의 중산층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Rodríguez Collazo 1992, 101-102) 1900년대 중반이후 아르헨티나는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주변국에서 많은 이민자가 들어와서 역내이민의 중심국이 되었다. 1970-80년대 브라질에서 7만 명 정도가 아르헨티나로 이주해왔고 파라과이, 우루과이, 칠레, 볼리비아 4개국에서 총 14만 명이 들어왔다. 우루과이에서 아르헨티나로의 이주는 지금까지도 지속적이다. 1950-80년 사이 약 40만의 파라과이인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로 이주하였고 현재 아르헨티나에는 약 백만 명 이상의 볼리비아 출신 이민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농장에서 일하는 생존을 위한 비숙련 노동 이민자들이다.(Kratochwill 1978; The Cambridge Encyclopedia, 149)

브라질의 이민 관계, 특히 주변국과의 이민 유형은 아르헨티나와는 다른 양태를 보인다. 아르헨티나와 마찬가지로 브라질도 유럽 이민자들을 많이 받는 나라였으나 주변국과는 이민자를 받기보다는 인접한 국경도시로 자국민이 많이 이주시키는 나라이다.(Kratochwill

1978)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로의 이주는 물론이고 우루과이 이주는 70년대 소농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이후 농업위기로 우루과이 토지가 격이 하락하자 브라질인의 우루과이 진출은 더욱 증가하였다. 따라서 브라질-우루과이 국경에서는 이중국적자가 많고 양국의 화폐도 함께 사용된다. 브라질의 추이(chui) 와 우루과이의 추이(chuy)는 대표적인 경우이다.(Rodríguez Vignoli 2002, 24) 이와 같은 브라질 이민의 독특한 성격은 브라질이 역사적으로 지켜온 이른바 ‘살아있는 국경’ 정책과 유관하다. 이 정책은 식민기간동안 포르투갈 왕실에 의해 추진되었던 것으로 개척자들(bandeirantes)의 서진(西進)정책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국 가	역내 이출민			역내 이입민		
	70	80	90	70	80	90
아르헨티나	64,000	90,000	100,000	337,000	411,000	418,000
파라과이	252,000	278,000	272,000	62,000	143,000	158,000
우루과이	73,000	133,000	159,000	35,000	33,000	41,000
브라질	97,000	152,000	155,000	51,000	65,000	67,000
계 (메르코수르)	485,000	654,000	685,000	485,000	654,000	685,000

출처: Rosana Baeninger, La migración internacional de los brasileños: características y tendencias, Población y desarrollo, CEPAL, 2002

이러한 역내이주 유형은 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최근에도 마찬가지이다. 아르헨티나는 전통적으로 주변국으로부터 많은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이며 반대로 브라질은 많은 이민자를 보내는 국가이며 파라과이 역시 이입민보다 이출민이 많은 나라이다.

삼국도시 간 이주 패턴은 삼국 간 이주의 그것과 유사하다. 우선 CE와 FI간의 이주는 브라질의 서진식민화정책(marcha hacia el oeste)으로 시작되었는데 브라질 사람들의 본격적인 파라과이 국경지역으로의 이주는 1960년대부터였다. 당시 파라과이의 (농업)국경 정책은

외국계 농목기업에게 토지를 판매하고 일본이나 브라질 등에서 농업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따라서 많은 브라질 사람들이 당시 파라과이 군사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고 파라과이에 정착하였다.<sup>4)</sup> 그러나 70년대 이후 이 지역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타이푸 댐이 건설되고 관광업과 상업이 번성하면서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교통과 소통이 빈번해지고, 밀수와 마약거래가 혼재되는 지역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곳으로 이주한 브라질사람들은 상업에 종사하거나 거대농업기업에서 품을 파는 농업노동자가 되었다.(Rodríguez Vignoli 2002, 24) 이들, 즉 파라과이 영토에서 생활하는 브라질 국적자 또는 이민자들을 브라시구아요(brasiguayos)라고 하는데 그 수는 약 30만 명 정도이다.

브라질에서 아르헨티나로의 이주는, 하나는 브라질 농민들이 미시오네스주로 이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나 비즈니스맨이 부에노스아이레스지역으로 입국하는 것이다. 즉 농촌행과 도시행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삼국국경 지역의 이주패턴은 농촌행에 해당된다. 초기 브라질 이민자들은 주로 도시에 이주하였으나 70년대 이후 미시오네스주로의 이주가 증가하였고 현재는 아르헨티나의 브라질 교민의 절반정도가 미시오네스 주에 살고 있고 1/3 정도만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거주하고 있다.(Rodríguez Vignoli 2002, 24)

이처럼 삼중국경에서 도시간 이주는 브라시구아요나 미시오네스의 브라질 농민들처럼 브라질에서 PI 또는 CE로의 이주가 두드러지는 흐름이었다고 할 수 있다.

### III.2. 국경의 이동과 순환

세 도시간의 이동과 교류는 주로 국경의 교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FI와 CE간에는 길이 500미터의 '우정의 다리'가 있고 FI와 PI간

4) 당시 파라과이의 스트로에스네르(Stroessner) 권위주의 정부는 브라질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었기에 국경지역에 브라질인들의 식민을 호혜적으로 허용하여 많은 땅들이 브라질인들의 소유가 되었다.(González Vera 2004, 16)

에는 ‘탄크레도 네베스(Tancredo Neves) 다리’가 놓여있어 삼국국경 지역의 순환이 이루어진다. 우정의 다리는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자동차와 인파로 장사진을 이루며 이 다리를 건너 평일엔 4만 명, 주말엔 6만 명이 브라질과 파라과이를 왕래한다. 특히 관광객과 쇼핑객이 몰리는 토요일에는 우정의 다리와 이어지는 국경도로에 수 킬로 미터에 이르는 차량 행렬이 생겨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기도 한다. 최근 파라과이와 브라질 정부는 우정의 다리로 몰리는 교통을 분산시키고 세관-검문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제2의 국경다리를 2007년까지 완공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재정 문제 등으로 기간내 공사가 이루어질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LA NACION, 2004/7/4) 또 하루에도 수십 번 씩 마치 별 떴처럼 국경을 분주하게 오가는 모토택시(mototaxi)라고 하는 오토바이들도 국경을 소통시키는 진풍경의 하나이다. 이처럼 우정의 다리를 통과하는 통행과 교통은 이곳이 지구상에서 가장 번잡한 국경중의 하나임을 보여준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을 잇는 국경 다리 역시 통행은 자유스러우며 하루 평균 4천 명 정도가 통행한다.(CNN, 2003/11/24)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 간에는 아직 교량이 건설되어 있지 않아 파라나 강을 횡단하는 수로로 이용하거나 브라질을 경유하여 통과해야 한다. 현재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 정부는 공동기술위원회를 만들어 양국간 교량 건설을 협의하고 있다(LA NACION, 2003/5/17).

세 도시간 이동에서 장애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국경교는 항상 열려 있고 세관은 24시간 근무한다. CE와 FI간의 국경 통과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선 검문 없이 이루어진다. FI에서 PI로 들어갈 때도 간단한 신분증검사와 화물검사만이 있을 뿐이다. 단돈 몇 백 원이면 국경을 넘나드는 버스를 수시로 탈 수 있다. 국경 버스는 타는 곳만 다를 뿐 시외버스와 마찬가지로이다. 또 이 삼중국경 지역에서는 상호간 40km 내륙까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

이동의 자유는 거래의 자유를 가능케 하는 환경이기도 하다. 삼중국경 지역의 상거래는 주로 콤프리스타(Compristas, 소상공이란 의미) 또는 사코레이로(Sacolerios, 짐꾼이란 의미)라고 불리는 브라질 상인

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브라질에서 CE로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빈손이며 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물건이 가득 담긴 보따리를 매고 넘어온다. 이들은 CE에서 구입한 물건에 이윤을 더하여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재판매하는데 하루에도 5-6번씩 우정의 다리를 넘나들면서 장사를 한다. 물론 정해진 법률에 따라 무관세로 국경도시를 통과할 수 있는 물건의 총액이 정해져 있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는다.<sup>5)</sup> 국경장사의 평균 이익은 최고 30% 정도이다.(César Bartolomé 2002, 61)

활발한 국경 거래로 CE는 이 지역의 쇼핑센터이며 그래서 파라과이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이다. CE는 파라과이 경제생산의 20%, 수출의 60%를 담당한다. 90년대 중반의 호황기에는 연간 9백만 명이 이 도시를 방문하였고, 역외에서 물건이 들어와 주변국으로 재판매되는 중계무역지로 크게 성장하였다. CE 세관 역시 파라과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세관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만연된 부정부패 때문에 세관 수입의 일부만이 국고로 향할 뿐이다.<sup>6)</sup> CE는 물건을 사기 위해 들어오는 방문객과 관광객으로 호텔업도 성해 약 천개 정도의 객실이 있다.

PI는 장기적으로 삼중국경 지역을 대표할 자유무역지대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카지노와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문을 연 카지노에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붐비는데 특히 브라질 관광객들이 많다. 일반적으로 중남미에서는 가톨릭적인 전통 등으로 카지노영업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일부 나라에서는 외국인만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관광지에 개설하기도 하는데 PI의 카지노도 외국인 전용으로 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상대로 째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국경경제의 메커니즘은 차이에서 비롯된다. 아무리 가깝게 붙어있

5)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의 경우, 인접국경통과(Tráfico Vecinal Fronterizo, TVF)규정에 의하여, 일인당 월 50달러에 상당하는 물품을 아르헨티나로 반입할 수 있으며 반대로 150달러까지 자유롭게 반출할 수 있다.(Subsecretaría de Comercio e Integración, TRAFICO VECINAL FRONTERIZO, 2002/11/1)

6) CE 세관의 관세 수입의 30% 정도만이 국고로 가는 것으로 추산된다.(BBC 2002/9/5)

더라도 국경도시 간에 공급이나 가격에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면 국경너머 시장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물건, 서비스, 인간의 이동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 국경엔 상업적 중개자가 나타나 국경지역 간 또는 국경과 내륙간 거래를 담당하게 된다. 이럼으로서 국경 경제는 성립된다. 국경도시 간에 인구, 노동력, 경제생산이 고르지 못하게 분배될수록 국경시장은 활성화된다. 또 경우에 따라서 중앙부(또는 수도권)와 멀리 떨어져 격리되어 있음으로 인해 국경의 자생적 발전이 강화되기도 한다. 국경지역간 거래는 양 국간의 환율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특히 밀무역의 경우, 더 민감하게 환율 변동에 반응한다.(Valenciano 1997) 국경도시 간 거래가 활발해지기 위한 대전제는 지역간 이동에 장애가 없거나 적어야 한다. 따라서 ‘차이’가 존재하고 ‘자유’가 있으면 국경경제는 살아 움직이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삼중국경은 역동적인 국경경제가 성립될 수 있는 이상적인 곳이다

#### IV. 삼중국경의 역설적 동력

##### IV.1. 국경경제의 그림자

국경경제의 또 다른 모습은 국경도시간의 밀수와 밀거래인데 이는 CE와 FI간의 물적 교류의 메커니즘이기도 하다. 파라나 강 저편에서 비닐봉지에 담배를 넣어 던져서 되파는 것부터 밀수 컨테이너를 통째로 사고파는 것까지 규모도 방법도 다양하다. 밀수의 품목도 다양하다. 주종은 가전제품이고 이외에 통신제품, 운동화, 음료수, 장난감, 시계, 섬유, 향수, 담배 등이 주로 거래된다. 불법 복제된 CD나 비디오 등도 주요 거래 품목이다. CE에는 ‘비공식(informal)’ 또는 ‘중고품(segunda línea)’이라고 하는 위조품과 모조품 거래가 일반화되어 있고 장신구나 해적판 음반들을 파는 ‘메시테로스’(Mesiteros)라는 행상들이 거리를 점령하고 있다. 이들은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

나라 교통 체증을 유발시키는 주범이기도 하다. 마약도 유통되는데, 마리화나의 경우, CE에서 FI로 몰래 유입되어 상파울루 등 대도시로 퍼져 나간다. 자동차의 불법거래도 성행한다. 아르헨티나에서 도난당한 차량 6,000대 정도가 매년 이 지역으로 흘러들어 그중 대부분이 파라과이와 볼리비아로 재밀매된다.

밀수와 불법거래에 비행기가 '동원'되기도 한다. 브라질 당국은 인접한 파라과이 국경지역에 100여개 정도의 사설 비행장이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배를 이용한 밀수도 성하다. 파라나 강을 통해 CE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 많은 물건들이 몰래 들어온다(César Bartolomé 2002, 64-65). 특히 밀수의 주 경로인 브라질과 파라과이 간에는 매일 수 만 명과 수 천 대의 차량이 왕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엄밀한 국경경비는 이루어질 수 없다. 단지 운이 나쁜 10% 정도만이 검사대상이 될 뿐인데 이중 대부분은 세금대신 뇌물로 문제를 해결한다. 불충분한 검문은 밀수를 더욱 성하게 하는 주 요인이다. 여기에다 이런 국경 거래는 삼중국경 지역에서는 이전부터 있어 온 하나의 일상이자 관행이기에 이를 근본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sup>7)</sup>

국경도시간 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관광객을 상대하는 유흥업소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그림자 중의 하나는 성관광업의 출현이다. 특히 미성년에 대한 강제노동중 이들에 대한 성매매가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8세 미만의 어린이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중 다수는 학교에 다니지 못하며 강제노동과 상업적 성행위에 종사하고 있다. 한 통계에 의하면 현재 삼국국경 도시에는 약 3만5천명의 미성년자들이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다. 삼국정부는 강제노동과 성착취를 위한 아동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가족들을 대상으로

7) 브라질과 파라과이간의 밀거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 시위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연말연시 특별단속기간에는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때론 시위가 격화되어 최류탄과 고무탄이 발사되고 다수의 부상자가 생기기도 한다. 이런 시위는 대부분의 경우 CE와 FI를 오가며 장사하는 브라질 보따리 장사꾼들이 주동한다.

계몽교육을 펼치고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는 자활교육을 추진하고 있다.(Comisión Nacional para la Erradicación del Trabajo Infantil) 이런 문제는 배금사상이 확산되는 것과는도 유관하다. 특히 CE의 젊은이들 사이에는 “돈은 곧 신이다”라는 생각이 만연되어 범죄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삼국국경 지역은 돈세탁이 용이한 곳이다. 현재 돈세탁 규모는 정확히 할 수 없지만 한 때 CE와 FI간 돈세탁은 최소 2천 5백만 불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다.(CNN 2001/8/9) CE의 경우, 은행 거래의 절반정도가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추측된다. FI의 환전소나 은행에서는 ‘CC-5’라고 하는 일종의 해외거주자계좌에 입금(송금)하면 파라과이의 은행으로 보내지는데 은행계좌는 대개 위조서류를 사용하여 차명이나 가명으로 개설하는 경우가 많아 돈세탁이 용이하다.(César Bartolomé 2002, 66-67) 또 브라질 경찰에 의하면 CE와 FI의 은행들은 카리브 국가의 은행을 통해 돈세탁을 목적으로 불법자금을 송금하기도 한다. 브라질 정부는 파라과이와 공조하여 불법 돈세탁 환전소를 단속하여 범죄 사실이 드러난 환전소를 폐쇄하기도 하지만 이들 환전소와 연계된 파라과이 환전소들은 실질적 제재를 받지 않아 그 실효성은 크지 않다.

#### IV.2. 국경과 테러리즘

삼중국경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테러와의 유관성 여부이다. 특히 미국정부는 911 테러이후, 명확한 물증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이 지역이 테러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기실 삼중국경에서 중동과 연계된 테러리스트의 존재에 대한 언급은 19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브라질 정보기관은 아랍계 이민자들이 중동테러조직의 활동자금을 모으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90년대 들어서는 테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아랍계 이민자들이 FI와 우루과이와의 국경 도시인 추이(Chui)에 정착하여



이 두 도시를 테러리스트들의 ‘기숙사’라고 칭하기도 했다.(César Bartolomé 2002, 67) 또 1992년과 1994년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있었던 유대인에 대한 테러 공격도 이곳의 아랍인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기도 했다. 특히 94년 AMIA 차량 자폭 사건의 범인은 레바논 출신의 헤즈볼라 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는 삼국국경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sup>8)</sup>

이스라엘 대사관과 유대인에 대한 테러 이후 삼중국경 지역과 아랍인들의 테러 연관 가능성이 또 다시 언급된 것은 9.11테러 때였다. 미국 국무부는 2001년 4월 세계테러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여기서 “삼중국경 지역은 여전히 라틴아메리카에서 회교과격주의자들의 관심지역이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sup>9)</sup>(CNN 2001/11/13) 9.11테러 이후 미국정부는 이 지역을 헤즈볼라나 하마스 같은 이슬람 과격 테러 단체에 자금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주목하고 향후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간주하고 조사했으나 물증은 발견하지 못했다. 당시 미국 CIA는 파라과이 경찰을 지원하여 용의자들을 검거하여 조사하였지만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BBC 2002/9/3, 5,6)

이처럼 이 지역이 이슬람테러조직과 연계성이 제기되는 것은 이 지역이 라틴아메리카에서 이례적으로 회교도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며 이들이 나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삼중국경의 아랍계 대다수는 FI에 살고 있는데 그 수는 약 1만 2천 명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불법이민자를 포함하면 그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특이한 것은 이들의 90%가 레바논 출신이며 이들 중 다수가 과격테러집단인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베카(Bekaa)

8) 1992년 3월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차량 폭탄이 터져 26명이 죽고 100여명이 다치는 테러가 발생하였다. 또 1994년 7월 18일 이스라엘 교민회관 AMIA(Asociación de Mutuales Israelitas Argentinas, 유대인 공동체 협회) 7층 건물이 폭탄테러로 폭발해서 86명이 죽고 200명 이상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다.(La Nación 2000/7/19, 2000/9/28, 2002/12/17, 2003/8/21)

9)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 이 지역의 아랍계 상인들은 혹시 자신들에게 어떤 화가 미칠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였다. 실제로 2001년 9.11 테러 이후 삼중국경의 아랍계 소상공인의 40-50%정도가 상파울루로 이주하였다는 보도도 있었다.(BBC 2002/9/5)

계곡 출신이라는 점이다. 또 미국의 대테러전문가들은 삼국국경이 테러리스트들이 숨어 지내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중동에서 도피한 테러리스트들의 은신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La Nación 2002/12/18) 또 이 지역의 불법과 부정이 테러리스트들이 활동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테러리즘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César Bartolomé 2002, 68) 밀수, 불법거래, 조직범죄 등이 조성하는 사회적 불안은 테러 활동을 은폐하기에 좋은 토양이 될 수 있으며, 테러에 사용할 무기와 장비를 용이하게 구할 수 있게 하며, 또 범죄자들을 테러에 쉽게 끌어들일 수도 있으며, CE나 FI 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반유태인 감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 IV.3. 부정부패와 범죄

밀수와 부정부패는 한 몸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브라질 정부가 ‘벼락’ 작전을 개시하기도 한다. 밀수범들과 연계되어 있을 국경 경찰을 배제하고 다른 지역의 경찰을 차출하여 밀수범 검거작전을 벌이기도 하지만 실효는 크지 않다. 우정의 다리를 지키는 국경 경비대는 브라질로 밀수되는 담배 한 상자 당 1헤알 씩의 뇌물을 받는다 고 한다. 밀수꾼들은 담배를 넘겨주고 운반비로 5헤알을 받는데 이중 1헤알을 경비병들에게 뇌물로 상납한다. 이렇게 하루에 넘기는 밀수담배는 약 2,000 상자 정도이니 경찰은 하루에 2,000헤알 정도를 뇌물로 받고 있다는 것이다.(아리랑텔에스테, 2003/3/8) 또 브라질 국경 경비 경찰은 밀수품을 실은 버스 1대당 250-500헤알을(2004. 1 기준 1 달러 당 2.8헤알) 받고 통과시켜주고 이로서 매일 수천대의 차량이 우정의 다리를 건너 브라질 영토로 밀수품을 밀어 넣게 된다. 검사를 받지 않고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차량번호를 미리 넘겨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CNN 2003/12/09)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는 불법적인 출입국을 가능하게 하여 테러를 발발하게 할 가능성을 높인다. 실제로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비자나 여권을 불법 발급해 줘서 이

를 이용하여 테러리스트들이 삼중국경 지역에서 다른 나라로 밀입국하거나 도피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국제적인 관광도시인 PI와 FI의 치안은 전반적으로 괜찮은 편이다. 경찰, 정보기관, 세관 등이 있고 여기에다 관광객을 위한 사설경비업체도 있다. 그러나 관광객이 증가하고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FI에서는 가끔 외국인을 겨냥한 절도와 강도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CE는 삼중국경에서 치안이 가장 안 좋은 곳이다. 경찰력이 부족하여 살인, 도둑, 강도 등 조직범죄가 빈번하여 특히 주변국 도시와의 밀수와 불법복제로 인한 문제들이 심각한 편이다.

이 지역의 조직범죄는 대부분의 경우 국제적 성격을 갖는다. 예를 들어, 마약 밀매의 경우, 생산, 유통, 소비의 각 과정들이 국가간, 도시간 연계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그 대처에 있어서도 국가간에 긴밀한 협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처럼 삼중국경의 일은 이제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탈국경적이고 다국적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런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재 이과수 국경 삼국은 테러, 마약, 돈세탁, 무기밀매 등에 대해 삼국 간에 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하고 있다.

부정부패는 밀수나 테러와 같은 불법을 도와준다. 그리고 불법으로 조성된 돈은 다시 부정부패를 조장한다. 이러한 악순환은 어떤 면에서 삼국국경의 어두운 동력일지도 모른다.

## V. 이과수 국경공동체: 공유와 통합의 국경

### V.I. 일상의 국경

삼중국경의 도시간 관계가 장밋빛만인 것은 아니다. 밀수, 돈세탁, 범죄 등의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여기에 삼국간 또는 세 도시간 불일치의 여지도 없지 않다. 가장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것은 CE 상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 상인들에 대한 문

제이다. 이들은 브라질에 살면서 파라과이에서 돈만 벌어진다는 이유로 파라과이인들의 반감의 대상이 되어왔다. 때론 CE 시민들이 브라질로 가는 국경도로를 봉쇄하고 지역상권을 회복시킬 방안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한다.<sup>10)</sup>

또 다른 잠재적 문제는 이타이푸 댐에 관한 것이다. 브라질 정부는 파라과이 국경의 자국 교민에 대한 안전과 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파라과이와 공유하고 있는 이타이푸 댐에 대해 절대적인 이해를 갖고 있다. 브라질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25%가 이타이푸에서 발전되며 특히 상파울루, 리우 데 자네이로, 파라나, 마토 그로소 두 술 주의 전력공급은 거의 이 댐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은 교민문제나 이타이푸 댐과 관련하여 어떤 위험이 생길 경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측은 '브라질군 전략계획'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González Vera 2004, 16) 이 계획에는 이타이푸 댐 지역이 브라질의 '안보지역'(security zone)<sup>11)</sup>으로 설정되어 있고, 또 FI는 브라질 보병의 주둔 기지로 비상사태 발생시 단시간 내에 댐 주변 지역을 장악하도록 되어 있다. 또 여기에는 해군 동원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아르헨티나의 개입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전략계획에 따르면 유사시 파라과이군의 저항은 연료 부족 등으로 기동력이 미약하여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대신 아르헨티나의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주변국, 특히 아르헨티나는 이러한 브라질을 견제하기 위해 삼중국경의 아르헨티나 측 미시오네스주에 아르헨티나 방위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이러한 삼중국경의 불일치의 양태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공유의 성격과 통합의 과정은 가시적이고 지속적이다.

10) 때론 이 시위에 택시, 트럭터, 중장비가 동원되어 CE 진입로와 이타이푸 고속도로, CE와 FI를 잇는 우정의 다리를 봉쇄하기도 한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는 CE로 출근하는 브라질인들의 출입을 막기 위함이다.

11) 주로 국토수호를 목적으로 국경인근 특정지역에 자국의 배타적 권리만을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외국인은 이 지역에서 기본적 권리들이 제한되는데 예를 들어 안보지역에서는 외국인은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 안보지역의 국가간-국경간 통합과 소통의 저해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Valenciano 1997)

삼중국경 도시간의 공동체적 관계가 빈번한 교류와 자유로운 이동의 일상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출근을 하기 위해, 서비스나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 국경을 오가는 이동과 그것으로 확대되는 도시간 소통의 증대는 공동체적 관계의 대전제임에 틀림없다. 소통과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거주지를 정하는 것도 어느 곳이던 무관하다. 그래서 이 지역의 부동산 업소는 ‘국제적’이어야만 한다. CE에서 제법 그럴듯한 부동산 업소로 행세를 하려면 필수적으로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국경지역의 주택이나 토지 등의 매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FI에서 거주하며 CE로 출근하는 일종의 국제통근자인 ‘프롱탈리에’<sup>12)</sup>는 삼중국경의 소통의 정도와 범주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소한 일상도 이과수의 세 도시는 함께 한다. 브라질은 대통령선 거일 전날 금주령이 내려진다. 이 때문에 PI가 곤혹을 치르기도 하는데 2002년 대선에도 예외없이 수많은 FI의 젊은이들이 탄크레도 네베스 다리를 건너 PI로 몰려와 밤새도록 롤라의 승리를 기원하는 ‘파티’를 벌여 아르헨티나 경찰을 진땀나게 했다.(La Nación 2002/10/28) CE는 도시전체가 거대한 시장통이다. 대부분의 상점들과 공장들은 제대로 된 방화시설이라고 찾아보기 힘든 무질서하게 지어진 낡은 건물들이다. 따라서 한곳에서 불이 날 경우 주변 지역으로 쉽게 번져 큰 피해를 입는다. 따라서 큰 화재가 발생하면 거의 항상 CE 소방서는 FI와 PI 소방서에 지원을 요청하여 함께 진화작업을 하게 된다.(La Nación 2001/11/2)

조금 더 큰일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911 테러로 국경지역에 대한, 특히 테러리스트를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CE와 FI의 아랍인에 대해 대규모 검거 열풍이 있을 때 브라질 상인들의 CE 행렬은 딱 끊겼고 이과수 폭포의 관광객은 급감하였다. FI와 CE의 호텔 예약은 911테러 직후 90%가 취소되었다. PI, FI, CE 모두 완전히 ‘동결’되었

12) 원래 프롱탈리에(frontalier)는 프랑스나 벨기에에서 룩셈부르크로 통근하는 노동자를 일컫는 말이다.(스토커 2004, 3)

다. 2001년 11월 삼중국경 '인' 6만 5천명은 FI에 모여 '국경 없는 평화'(paz sin frontera) 행사를 거행하였다. 이 행사의 목적은 삼국국경은 테러와는 무관한 안전한 곳이며, 아랍인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이곳에서는 국적과 인종을 초월하여 평화적이고 생산적인 공존을 추구하는 곳임을 알리는 것이었다.(BBC 2002/9/3, 5, 6) 삼국국경의 밀수, 마약, 테러와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한 노력도 공동의 몫이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2003년 제 1회 국제연극제가 열렸는데 아르헨티나 연극은 FI에서, 브라질 연극은 CE에서, 파라과이 연극은 PI에서 교차 공연하는 식으로 진행하여 삼국도시간 이해 증진에 기여하였고 아울러 관광자원으로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La Nación 2003/6/26)

## V.2. 통합과 개방의 국경

사소한 일상뿐만이 아니라 국경 사람들의 거시적 삶의 영역에서도 공유와 협력의 성격들은 찾아볼 수 있다.

통합된 국경의 발전된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수자원이나 석유와 같은 천연자원의 공동 개발과 이용이다. 이타이푸 댐과 파라나 강은 이를 상징한다. 국경 하천에 건설된 이타이푸 댐은 국가간 잡음 없이 원만하게 공용되고 있으며 파라나 강도 수량이 풍부하여 수자원의 이용을 둘러싼 세도시간 대립은 거의 없다. 환경문제는 최근 국경을 이해하는데 있어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는 주제이다. 삼국 도시의 지리적 인접은 공기나 물과 같은 자연 환경도 공유함을 의미한다. 향후 파라나강의 수질 오염 문제나 하천변 도시개발 등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한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이 지역은 국립공원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도시간 협력 하에 자연 생태계를 잘 보존하고 있다.(La Nación 2003/6/21) 공유 자원의 개발이나 생태계 보존 문제는 그 지리학적 특징으로 인해 협상 또는 충돌의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국경의 성격을 분명하게 가늠할 수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삼중국경 지역은 공

존과 공생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통과 통합의 가장 중요한 경로중의 하나는 언어이다. 스페인어 (español)과 포르투갈어(portugués)의 혼합인 포르투놀(portuñol)은 삼중국경 지역에서 널리 통용된다. 브라질과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주변국간 국경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포르투놀은 특히 이곳 이과수 폭포를 중심으로 한 삼중국경 지역의 주요한 방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제 포르투놀은 학술적으로도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최근엔 포르투놀로 쓰인 문학작품이 출간될 정도로 그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포르투놀은 의사소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국경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생겨난 필요의 언어이다.(BRASIL: Publican el primer libro) 이 곳에서는 포어와 스페인어를 동시에 유창하게 구사하는 현상이 더욱 일반화되고 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양국은 스페인어와 포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국어 학교를 공동으로 개교하기로 합의했다. 또 메르코수르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중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방학을 이용하여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양국 교사의 상호교환을 통해 이중국어수업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문국 정부는 교사들의 교통비를 부담하고 체재비는 피방문국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재 브라질 의회에서는 스페인어교육 의무화를 논의하고 있다.(CNN 2003/11/23, 26)

삼중국경 지역은 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삼국 모두에게 ‘중립’과 ‘개방’의 이미지를 갖는다. 국제적인 관광지인 관계로 회의 개최에 적합한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삼국의 중앙에서 접근하기 유리한 위치이기 때문에 국제회담이 열리기에 좋은 곳이다. 따라서 이곳은 삼국간 회담은 물론이고 남미지역 국가간 국제회의도 빈번하게 열리는 열려진 공간이기도 하다.

비록 세도시간에 대립과 불일치가 전무한 것은 아니지만, 이과수 폭포를 기점으로 한 삼중국경의 자연, 일상 그리고 문화의 소통과 공유의 부분들은 이 도시들을 공동체적 범주로 묶여놓기에 충분하며 따라서 이곳은 ‘이과수 공동체’에 다름 아닌 것이다.

## VI. 맺는 말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삼국이 접하고 있는 삼중국경 지역은 지리-경제적으로 이과수 폭포를 중심으로 한 국경 공동체적 성격을 갖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과수 폭포를 관광하기 위해 이 지역에 오며, 이 폭포를 공유하는 PI와 FI는 관광업을 매개로 쌍둥이 도시처럼 기능한다. 거의 모든 관광 코스들도 이 두 도시를 하나로 묶어 만들어져 있다. 여기에 하나가 더하자면 그것은 폭포를 둘러본 다음 CE로 쇼핑을 가는 것이다. 삼중국경의 쇼핑센터 역할을 해 온 CE는 여러 오명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곳의 시장 도시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삼중국경 지역의 형성과 발전의 원동력은 이과수 폭포의 관광업과 CE의 상업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밀수, 테러, 범죄, 불법, 부정과 같은 어두운 관계마저도 세 도시가 하나로 묶여 있으니 이것은 ‘역설적 역동력’이라 부를 만 하다. 따라서 이과수 국경 세 도시의 공존은 필연적이고 상호적인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삼중국경의 일상과 경제가 이미 상당히 공동체적인 것처럼 문화간 관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통상 국경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국경 너머 상대방의 습관이나 가치 그리고 언어 등을 상호 수용하며 이를 통해 국경의 사람들은 이중어사용자가 되거나 다문화적 성향을 가지게 된다. 삼중국경에서 이러한 문화간 교류는 매우 명확하게 나타난다. 특히 주목할 만 한 것은 삼중국경의 이문화 소통이 탁월한 문화간 전환(conversion) 능력으로 발현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중남미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이 말에서 저 말로, 이 돈에서 저 돈으로, 이 문화에서 저 문화로의 적응·환원 능력과 자질은 삼중국경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점이다. 이곳에서 스페인어와 포어, 그리고 포르투갈의 사용은 동시적이며 국경을 넘나드는 버스 요금은 헤알, 페소, 파라니, 달러건 무관하다. 이것은 문화와 국경에 얽매이지는 않는 다문화적·탈국경적 일상과 생존을 가능케 하는 자질인 동시에 혜택인 셈이다.



삼중국경은 국가간 관계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국경은 낙후되고 열악한 곳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이었다. 그래서 라틴아메리카에서 이전의 국경은 단지 정치적 주권의 경계일 뿐이었고 방어적인 땅일 뿐이었다. 삼중국경도 그러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삼중국경은 교역과 교통의 공간이며 통합과 협력의 무대이다. 따라서 이전의 삼중국경에서는 밀수, 불법이주, 영토분쟁 등의 관계가 주를 이루었다면 오늘날에는 도로와 교량이 이어지고 전기와 통신이 연결되고 공유자원이 개발되는 것과 같은 협의와 협력의 국경이 논의되게 된다. 이처럼 국경은 필연적으로 대립이건 협조건 인접국가와의 관계를 반영하게 되는데 따라서 삼중국경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삼국간의 소통과 이해를 가장 세밀하게 고찰할 수 있는 포인트인 것이다. 또 삼중국경 지역의 통합과 협력의 과정을 국가간 관계로 확대시켜 예상해보면 이것은 더 큰 단위의 통합의 시금석일수 있다. 이는 라틴아메리카의 통합은 국경의 재평가를 전제로 구상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라틴아메리카의 정치경제를 리드하는 담론 또는 논리로서 신자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아직까지 유효한 듯 하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논의에서 문화간 관계는 획일화 또는 미국화를 지향하며, 그 내용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영토에 집착하지 않는 정체성을 추구한다는 것이다.(Globalización y Desarrollo 2002, 247-248) 그래서 세계화가 가져다 줄 세상은 희망이건 위협이건 간에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점점 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려지곤 한다.

살펴본 것처럼 삼중국경의 문화와 일상은 어느 한 나라에 집중되지 않는 탈영토(또는 국가)성을 보이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조응하나 국경사람들의 삶의 양태는 획일화나 서구화와는 다른 그들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삼중국경적'인 성향을 보이기에 그것과는 무관하다.

차라리 삼중국경 지역에서 사람들의 이동과 소통은 '프롱탈리에'로 상징되는 것처럼 자유롭고 물건과 서비스의 교환과 거래도 장벽

없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삼중국경은 '자유적'인 곳이라 할 수 있을 터이다. 또 이곳의 삶의 방식은 아르헨티나건 브라질이건 어느 한 나라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이곳의 공존과 공유로 인해 국가간 통합과 협력의 미래를 가늠하기에 적절하기에, 삼국국경은 나라 단위의 인식을 초월하는, 초국가적인, 즉 이미 세계화된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 Abstract

La triple frontera, situada entre la Foz de Iguazu(FI) de Brasil, el Puerto Iguazu(PI) de la Argentina y la Ciudad del Este(CE) de Paraguay, posee un carácter de la comunidad fronteriza geoeconómicamente. Muchos vienen a este lugar para visitar la catarata Iguazu puesto que FI y PI se constituyen en las ciudades gemelas y CE se funciona como un centro comercial de los turistas de Iguazu. Las tres ciudades de la frontera son integradas y interrelacionadas por el dinamismo 'negro', derivado de la problemática común como el contrabando, el terrorismo, los delitos, las corrupciones y injusticias y etc. Por lo tanto, la cooperación y coexistencia de las tres ciudades fronteriza parece ser evidente e inevitable.

Asimismo el modo de vivir en la triple frontera se puede considerar común y comunitario. Aquí se aceptan y reconocen las costumbres, las lenguas y los valores ajenos lo que se materializa en la habilidad intercultural. Los de la triple frontera usan libremente el peso, el guaraní, el real o el dólar y hablan sin mayor dificultad el español, el portugués o el portuñol. Todo esto nos demuestra que en esta frontera la vida tanto intercultural como transterritorial se establecen y consolidan cada día más en la forma silenciosa y firme. En la América Latina actual la frontera ya no es la línea de interrupción y separación sino que

desempeña un rol de proporcionar una posibilidad de la cooperación y integración entre los países.

Key Words: Triple frontera, Iguazu, Ciudad del Este, Migración, Turismo, Geografía / 삼중국경, 이과수, 시우단 텔 에스테, 이주, 관광, 인문지리

논문투고일자: 2004. 08. 23.

심사완료일자: 2004. 10. 26

게재확정일자: 2004. 11. 20

## 참고문헌

- 김홍철(1997), 『국경론』, 민음사.
- 민만식 외(1993), 『중남미사』, 민음사.
- 이전(1994), 『라틴아메리카의 지리』, 민음사.
- 피터 스토키(2004), 『국제이주』, (김보영 역), 이소출판사.
- Britannica 백과사전 2000.*
- Rodríguez Collazo, Angel & Josefa Santiago Caraballo(colaboradores)(1992), *América Latina Tierra de Contrastes*, Puerto Rico: Santillana.
- The Cambridge Encyclopedia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199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eninger, Rosana(2002), “La migración internacional de los brasileños: características y tendencias”, *Población y desarrollo*, Santiago: CEPAL.
- CEPAL(2002. 5), *Globalización y Desarrollo*, Santiago: CEPAL, pp. 247-248.
- César Bartolomé(2002), Mariano, “La Triple Frontera: Principal Foco de Inseguridad en el Cono Sur Americano”, *Military Review*, Julio-Agosto 2002, pp. 61, 64-28.
- Conferencia Sudamericana sobre Migraciones*(2002), Buenos Aires, pp. 18-19.
- González Vera, Roque(2004), “Brasil considera tema de Estado a Itaipú y colonos en Paraguay”, *ABC*(2004/01/29), p. 16.
- Rodríguez Vignoli, Jorge(2002), *Distribución territorial de la Población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 tendencias, interpretaciones y desafíos para la políticas públicas*, Santiago: CEPAL, p. 24.
- Subsecretaría de Comercio e Integración(2002), *TRAFICO VECINAL FRONTERIZO*, Buenos Aires, 2002/11/1.
- “BRASIL: Publican el primer libro de poesía en portugués”(2004), *Comunica*

- Press* 2003/9/10, [www.unidadenladiversidad.com/actualidad/actualidad\\_ant/-2003/septiembre](http://www.unidadenladiversidad.com/actualidad/actualidad_ant/-2003/septiembre), 2004, 7.
- Cirigliano, Gustavo(2004), *La patraña del peligro terrorista en la triple frontera*, *Centro de Militares para la Democracia*, <http://www.argentina.attac.org/documentos/14.07.htm>, 2004. 5.
- Comisión Nacional para la Erradicación del Trabajo Infantil*(2003), <http://www.conaeti.gov.ar/difusion/files/movilizacion.htm>, 2003.12.
- El Terrorismo Global y Triple Frontera*(2004), <http://www.seguridadydefensa.com/editorialcompleta2.asp?id=8020&tn=nota>, 2004. 1.
- Kratochwill, K. Hermann(1978), “Movilidad Transfronteriza de Personas”, *Migración Laboral y Proceso de Interacción Regional en América Latina*, Montevideo, Uruguay, <http://www.cefir.org.uy/-docs/dt11/13kratoc.htm>, 2003/12.
- Valenciano, Eugenio(1997), *La Frontera: Un Nuevo Rol Frente a la Integración, La Experiencia en el Mercosur*, Centro de Formación para la Integración Regional, Uruguay, <http://www.cefir.org.uy/-D-index.htm>, 2004.1.
- 미시오네스 주정부(<http://www.misiones.gov.ar/IPEC/index.htm>, 2004, 5)
- BBC*, [http://news.bbc.co.uk/hi/spanish/latin\\_america](http://news.bbc.co.uk/hi/spanish/latin_america).
- CNN*, <http://www.cnnenespanol.com/americas>.
- Folha de São Paulo*(브라질 일간지, <http://www.uol.com.br>)
- La Nación*(아르헨티나 일간지, <http://www.lanacion.com.ar>)
- LA NACION*(파라과이 일간지, <http://www.lanacion.com.py>)
- 아리랑텔레스테(파라과이 교민신문, <http://www.deleste.net>)